

# 벤처기업이 육성돼야 한다

안영경 / 핸드소프트 사장

「경제난국의 돌파구」, 「산업구조 조정의 핵심」, 「일본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벤처산업에 대한 기대어린 말들이다. 벤처산업이 과연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기약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세어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기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불확실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글로벌 자유경쟁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나 취향도 급속하게 변하고 다 양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롭게 분화된 분야가 생겨나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경제전쟁의 속성은 바로 「스피드」와 「변화」. 여기에 뒤지는 기업은 경쟁에서 쓰러지고 선두대열에 속하는 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생산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벤처기업은 바로 이런 변화를 기존의 회사들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태동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벤처스타' 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하면서 다양화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뛰어올 사람을 원한다.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인 방식에서 기술중심으로 바꾸어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줄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대가 한국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난국 수습책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침체 원인을 산업구조의 왜곡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대폭적인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주장하고 있다. 즉 70~80년대 자동차나 선박, 중화학공업처럼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통해 시장이 독식되던 산업구조와는 달리 이제는 짧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제품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생산, 시장에 공급하는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구조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중공업 위주 투자로 일관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벤처기업 육성으로 현시국을 타개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현 상황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따른 기술중속국으로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도 고도 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은 필수사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벤처기업에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정보통신분야 등 하이테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그렇듯,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불황 타개는 물론 모든 산업의 핵심세력으로 떠올라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는 양상이다. 국가 경제가 지속적인 불경기에 빠지면서 정부나 국민들 사이에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여러가지 지원 육성책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은 분명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육성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시장 등의 전면개방으로 맞게 될 선진기업들과의 경쟁격화는 아직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악재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해외시장 공략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점차 세계시장이 단일화 되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로 요즘의 긴박한 현실이 벤처기업에게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도 본다.

불과 몇년전까지 불황의 긴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경제가 수많은 벤처기업들로 인해 되살아난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도 벤처기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신데렐라로 부상중인 것이다. 이제 이 땅의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드리워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